

## 일본기업들의 사업재편은 계속되나요?

일본에서 채산성이 악화된 사업을 중단하고 경영자원을 새로운 유망 분야로 옮기는 기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

### 1. 사업재편을 해야 하는 이유

-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든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이른바 라이프사이클이 있음
  - 대부분의 기업은 연구개발의 성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설비투자를 해서 대량생산체제를 갖추는 수순을 따라감
  - 출시한 제품이 성공하게 되면 추가로 투자를 해서 증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에 공장을 세우기도 함
  - 신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회사도 따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증산체제를 갖추어 대량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필요가 있음
- 그러나 어떤 제품이든지 시장에서의 판매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
  - 원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이 제품을 가지게 되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판매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며, 다른 회사에게 시장을 내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
  - 이런 상황에서 남은 설비와 인력을 그대로 두면 적자가 늘어나 기업실적은 악화됨

- 이런 상황에서 필요해지는 것이 이른바 구조조정 혹은 사업재편임
  - 사업재편은 불필요한 설비를 폐기처분하여 고정비를 삭감함으로써 채산성을 개선한다든지, 자금과 인력을 미래성장분야로 옮기는 것을 말함
  - 바꿔 말하면 한정된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

## 2. 최근 사업재편 사례

- 일본에서 종합화학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쯔비시화학(三菱化学)이 지난 2011년 봄 염화비닐수지의 국내생산을 중단했음
  - 금융위기 이후 나일론 수지사업 등 매출액 합계로 약900억 엔에 달하는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한 것임
  - 이들 사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채산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
- 한편 미쯔비시화학(三菱化学)은 태양전지, 발광다이오드(LED)조명 등 환경분야로 채산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였음
  - 이미 약 300명의 종업원을 신규 사업 분야에 새롭게 배치 전환하였음
-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세계수요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, 일본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

### <참고자료>

Q&A 日本經濟100の常識, 日本經濟新聞社